

## 前아사히신문 주필 "보통 일본인은 우경화 안 해"

 연말뉴스 | 기사입력 2013-06-14 20:58

(서울=연합뉴스) 김지현 기자 = 와카미야 요시부미(65)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평균적인 보통의 일본인은 우경화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와카미야 전 주필은 14일 오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건물에서 '일본 우경화의 실체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아베 신조 내각의 인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일 뿐 아베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 우경화론에 다양한 근거가 있고 따라서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정이 다르다"면서 신사참배, 무라야마 담화 논란, 독도 문제 등에 양면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신사에는 전쟁 때문에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영도 모셔져 있다"면서 "유족이나 보통 국민도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기도한다.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집단 참배하는 건 이상한 일이지만 A급 전범 참배 목적은 아니다"며 "원래 수상·외상·관방장관 등은 참배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식의 불문율이 있는데, 아소 다로 부총리의 참배는 바보같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전쟁 책임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 승계 문제의 경우 "1998년의 일한 공동선언에 인용됐고 같은해 일중 공동성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서 "부정한다면 일한, 일중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므로 아베 정권이 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이 서로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그는 "일본으로선 전쟁을 해서 자국 영토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일관계의 가시로 가져가는 것도 어려우니 양보하는 게 좋지 않나"며 "다만 한국도 (일본의) 그런 결단을 평가해주고 그것이 우정의 표시가 돼서 독도가 우정의 섬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와카미야 전 주필은 1970년 아사히신문에 입사해 정치부장, 논설위원, 논설주간, 주필 등을 역임하고 지난 1월 퇴임한 후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동서대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언론인이자 자유주의 논객으로 통한다.

이날 강연의 대부분은 와카미야 전 주필의 뜻에 따라 한국어로 진행됐다.

j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전병헌 "전두환 불법재산 9천334억원 추정"
- ☞ <'너의 목소리가 들려', 현실을 마주한 판타지>
- ☞ 탈주범 이대우, 부산 잠입 확인...지문 발견(종합)
- ☞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 재계약, 사실 아냐"
- ☞ 김한길 "당사 8월까지 폐쇄...10분의 1로 축소 이전"(종합)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인터랙티브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316505>

---

인쇄하기 취소